

0919(월) 아모스 6-9장 성도의 삶

아모스는 문서를 남긴 선지자 중 첫 사역자입니다(1:1).
하나님의 정의, 이스라엘의 윤리적 삶에 대한 강력한 선포,
아모스가 처음으로 사용한 <여호와와 날>이라는 용어는
이후 선지자들*에게도 그대로 이어졌습니다.

* 호세아, 미가, 이사야, 스가랴, 스바냐, 예레미야, 에스겔

아모스는 시내산 언약과 율법의 참 의미를 일깨웠습니다.
본래 <선민 이스라엘>의 존재와 생활 방식의 차별성은
하나님과 관계, 하나님을 닮아가는 데 있습니다.
이스라엘은 '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선별된 백성'으로서(3:2)
하나님의 성품과 방식대로 **살도록** 부름 받았습니다.

하나님과 관계는 **종교와 삶** 둘 다를 아우릅니다.
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, 존재하는 모든 것들 중에
하나님의 순리와 섭리 밖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.
종교와 삶, 사회정의, 온 나라와 온 인류의 역사가
하나님께 속했으며 하나님의 관심 안에 있습니다.
(1-2장, 4:13, 8:1-7, 9장)

심판 때에 하나님은 **종교와 삶** 모두를 살피실 것이며,
열방 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도 심판하실 것입니다(1-2장).
온 세상의 주님이신 하나님은 모두를 공정히 대하시며
하나님의 법에 따라 <행위대로> 심판하십니다(7:8, 8:2,7).
선민 이스라엘도 예외는 없습니다(3:2-8, 14-15, 6:8-10).

“화 있을진저 여호와와 날을 사모하는 자여
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와 날을 사모하느냐
그 날은 어둡이요 빛이 아니라(5:18)”

하나님은 <타이틀>이 아니라 <삶>을 보십니다.

나는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살고 있습니까?

- ①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지향하는 구별된 자로 살고 있습니까?
- ② 하나님의 성품과 방법대로 나아가고 있습니까?

시작기도 + 통독 아모스 6-9장